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안젤로주립대학교
파견기간	2018.08.27 ~ 2019.01.14
프로그램	교환학생

## 1. 출국 전 준비사항

**유학생 보험** : 먼저, 유학생 보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회사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 간 장단점이나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재정 상태나, 원하고자 하는 보장내역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할 점 하나가 각 학교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이 꼭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얼마 이상은 최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이 충족되지 않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후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필히 조건에 맞는 유학생 보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화손해보험’의 유학생 보험을 1년간 신청하였고, 약 60만원의 비용으로 가입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보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이 교환학생을 가는 해당 나라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동안 여행위험지역을 제외한 국가 모두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비자** : 아버지가 저의 미국 비자를 보고 이 것이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미국 비자냐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말처럼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을 찾아가고, 인터뷰를 하고, 우편으로 수령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자를 받는 과정은 지금 여기에 말로 구구절절 써 내려가는 것보다는 사진과 함께 잘 설명된 네이버 블로그들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서류 준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미루지 말고 차근차근이 해나가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제 교류원 측에서 도움을 주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온전히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항공권** : 항공권의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그 가격이 많이 다르다고는 하나, 저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검색하지 않고, 출발 4개월 전 어느 날에 바로 구매한 터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듣기로 미국의 항공권은 약 4개월 전에는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격비교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저는 카약(KAYAK)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많은 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해준다고 판단하여 위 웹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인천부터 안젤로 주립대학교가 있는 산 안젤로까지 편도로 약 110만원 정도를 지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같이 온 교환학생 중 두 학기를 같이 지낸 한 친구는 일단 왕복 티켓을 구입하여, 추후에 한국 복귀 날짜가 결정된 후 수수료를 내고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의 편도 가격으로 왕복 티켓을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 날짜의 항공권은 검색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이유로 왕복 티켓을 사려고 하더라도 귀국편 날짜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학생의 방법은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편도의 비행기를 두 번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방법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 전 남미를 여행하였고, 저와 같이 다른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한 가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물품(짐 꾸리기)** : 먼저, 짐을 꾸리는데 있어서 한국에 있는 물건이 미국에 없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쓰는 화장품이나, 기타 개인적인 용품, 또 굳이 권한다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학용품(미국에는 얇은 심을 가진 볼펜이 없었습니다)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나, 괜한 걱정으로 바리바리 짐을 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을 하기 전 충북대 교환학생 카페의 후기를 참고하였는데, 한 가지 조언 중 하나가 미국의 수건은 질이 몹시 안 좋으니 한국의 수건을 꼭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의 월마트를 갔을 때, 한국의 수건과는 정말 다를 것 하나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좋은 브랜드들이 한 곳에 있는 창고형 매장(Ross, Marshalls 등)이 있어 되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편입니다. 전에 봤던 다른 분의 글처럼, 미국 현지의 물건들을 사서 써 보는 것도 문화를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정규학생들과 교환학생이 많은 안젤로 주립대학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가 존재하고, 이 학생회가 한국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매 학기 초, 이 전의 기부 받은 학생들의 물품으로 도네이션 행사가 진행되는데, 선착순이고 제한된 시간이 주어지지만, 최소한 많은 양의 옷걸이, 운이 좋다면 헤어

드라이기, 우산 등과 같이 유용한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 안젤로의 날씨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름의 온도는 40도가 넘기도 하지만 건조하여 그늘에 들어가 쉰다면 땀이 식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겨울의 온도는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더라도 바람이 몹시 불어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춥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명확히 존재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옷을 부모님이 보내주시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가는 길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문양이 그려진 열쇠고리와 같은 기념품을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를 조언 받아 출국 전 다이소에서 귀여운 열쇠고리를 많이 구매했는데, 이 작은 기념품들이 친해지고자 할 때, 친해졌을 때, 헤어져야할 때, 언제든지 작지만 큰 기능을 합니다. 꽤 넉넉하게 구매하고도 주고 싶었던 친구들이나, 여행 중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충분히 주지 못하였는데, 부족할 바에는 차라리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많다고 하더라도 다음 교환학생에게 물려주고 오면 되는 부분입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언어** : 저의 경우에는 교환 학생의 목표가 영어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과장이 아닙니다. 영어권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학기를 미국에서 지내면서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적이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싫건 좋건 영어가 들려오는 미국에서 9개월을 생활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점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본토에 간다고 하더라도, 겁이 난다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본인의 영어를 써먹지 않으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사실 새롭기만 한 것들이 금새 익숙한 것들이 되며, 그 순간부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들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그 곳에서 4년을 지낸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영어 실력에 대해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하고, 매일같이 영어권 학생들 만나기를 목표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최고로 효과적이고, 미국까지 온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발음 때문에 못 알아 듣는 종업원이 너무 밉고, 잘못된 단어 선택에 친구들의 짓궂은 놀림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또, 24시간 영어를 사용

한다는 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곳까지 오게 만든 본인의 결심을 스스로에게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고 느낀 바이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자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표현이 정말 확실합니다. 이 때,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감정표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학생들, 교수님들 모두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수업 중에도 질문과 답변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본인의 SNS에 셀프 비디오를 통해 (미국의 경우 스냅챗)이를 드러냅니다. 타투 역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하는 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헐리우드 스타인 마냥 과하게 익스프레스티브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할 바에는 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 : 같은 빅맥 세트라고 하더라도 주마다 다른 미국입니다. 산 안젤로같은 경우에는 서부의 L.A.나 동부의 뉴욕보다는 물가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처에 H.E.B나 월마트같은 마트를 이용하여 음식을 해먹는 경우, 공산품을 사는 경우, 과일을 사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저렴하다고도 느꼈습니다. 한국의 옥션, 지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아마존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살 수 있게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를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할 경우에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팁과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한 끼당 최소 12달러 이상씩은 족습니다. 이는 지금의 환율로 환전하면 14,000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사실 산 안젤로라는 동네는 크기가 작아 쇼핑을 할 곳도 많이 없고, 여행을 할 때를 제외한다면 큰 돈을 쓸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 - 학교** : 저의 경우에는 한국인 조교와 도우미 학생이 픽업을 와줬습니다. 현재는(19년 2학기 기준) 한국인 담당 조교가 바뀌어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수의 학생이 일찍 도착한다면 개인 차량이 픽업을 오거나, 단체로 도착하면 작은 스쿨버스로 픽업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전에 학교측에 연락을 해봐야하는 바이고, 행여 픽업을 확답받지 못하더라도 공항과 학교의 거리가 멀지 않고, 늦은 새벽을 제외하면 우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과 수업내용에 대해서 출국 전 안젤로 주립대학으로부터 메일을 받아 자세히 과정과 절차를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 헷갈리기도 하나, 메일에 자세하게 적힌 내용을 차근차근 따르다 보면 이내 쉽게 수강신청도 하고, 수업의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일에는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추천되는 수업의 목록도 적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의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전에 미리 학과의 조교님과 교수님에게 연락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확실히 묻는 것이 좋습니다. 첫 수업은 대부분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행여 맞지 않더라도 개강 후에 수업을 바꿀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바입니다.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 기숙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명이나 4명이 한 집에 같이 살며, 화장실과 작은 거실을 공유하지만 개인방이 제공되는 센테니얼, 2명이 한 방에서 사는데 가운데 있는 옷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플라자(본인이 지낸 곳), 4명이 함께 살지만 2명/2명 방이 나뉘어져 있고 유일하게 취사가 가능한 벤더벤티어, 2명이 함께 살며 아늑한 느낌이 있지만 프라이버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메리메시와 카홀. 가격과 그 장단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를 찾아가서 요청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생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랜덤으로 배정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먼저 번에 같이 지낸 미국인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방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취사가 가능한 벤더벤티어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그 곳에 지내는 한국 학생의 방에 놀러가서 한국음식을 해먹거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했는데, 이 점이 작지만 큰 위로와 재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내·외 활동 :** 다양한 동아리가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영어회화 동아리 Eptis는 물론, 다양한 국적의 학생회들, 신발 수집 동아리, 비즈니스 동아리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말을 해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150명 정도가 있어 위에서 말했듯 한국 학생회가 있고, 이 곳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지의 학생들과 문화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자체에 행사도 무척 다양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해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학생회가 주최하여 커플 매칭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즈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기도하고, 학교 미식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으며, 캠퍼스 밖의 호수에 가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관심있거나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꼭 참여해보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친구들 정말 축구 안합니다 (ㅠ.ㅠ)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여행을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한 편입니다. 겨울 방학 때는 미국 동부(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를 한 달간 여행하고, 봄 방학에는 서부(라스베가스, L.A., 샌디에고)를 10일동안 여행했습니다. 또, 미국의 추석인 Thanksgiving day 때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를 4일, 델러스에 사는 미국인 친구 집에서 4일을 지냈고, 귀국 전에는 남미 6개국(쿠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를 여행했습니다. 한 곳 한 곳마다 여행기와 정보를 풀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남는 족족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것도 교환학생이라는 경험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온 김에 돌아오는 생각으로 동행을 구하여 일정을 맞춤 생각조차 하지 않고 홀로 다녔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나 비행기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 텍사스에서 멕시코나 남미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물론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레 얘기하지만, 밤 시간에 홀로 돌아다니지 않고, 사전에 경고 받은 행동은 하지 않으며, 본인이 본인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모든 게 새롭다가도 금방 익숙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지나도 게을러지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내가 왜 이 곳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들이기로 결정했는지, 내가 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였는지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은 무엇을 얻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진짜 얻어가느냐는 100% 본인에게 달린 경험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여태 제 긴 글을 봐주신 후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경험에 대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카톡: adf1220)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기숙사 (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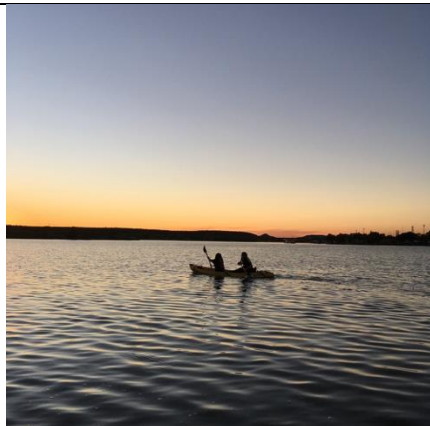
기숙사 내부 모습 (플라자)



미식축구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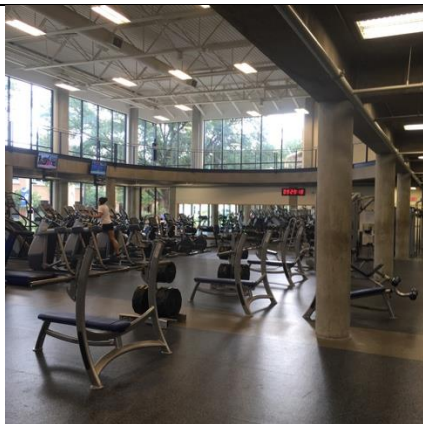
교내 중앙 쉼터



레이크 하우스(캠퍼스 근처)



한인 음식점 & 마트



헬스장



교내 행사 (탤런트쇼)



할로윈 파티

